

2005년도 “종축개량”



홍보 개발 부
부장신재영

우리나라 주곡인 쌀에 대한 국회 수입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경종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 큰 힘이 되지 못하여 죄송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감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시작이 엇그제 같은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벌써 올해도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누구도 막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사이 “종축개량” 제 10권도 마무리하고 2006년 제11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축개량”지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71년 8월에 제1권 1호 “축산”으로 출발하여 “월간 축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79년부터는 처음으로 “개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종축개량”으로 반기 또는 분기별로 발행하여 1994년까지 제16권을 회보지로 발행하였으며, 1995년에 문화공보부에 정식으로 등록후 다시 제1권으로 격월발행을 시작하여 현재는 월간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우개량”, “젓소개량”, “종돈개량”이라는 축종별 발행도 하였으나 지금은 한우 및 젓소부분을 통합하여 “종축개량”으로 재개칭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35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축개량”은 우리나라 축산역사와 동고동락을 하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그 동안 열심히 발행을 도와준 농가와 특히 원고를 투고하여 주신 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리며, 그 동안의 발행된 책자를 책꽂이에 보관하고 있는 농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여 협회 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도약에 대한 의지감이 새로이 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간을 끝내면서

이제 2006년의 발행 사업을 앞두고 “종축개량”지가 회원농가에게 얼마나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여 종축의 개량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국제경쟁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량”은 다른 사양, 질병 관리와는 달리 곧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개량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량목표에 도달되면 또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 현대의 전자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전쟁에서는 병사들의 사기와 충분한 식량 등의 전쟁물자가 승리의 요건이었습니다. “개량전쟁”에서 사기와 물자는 농가들의 개량의지와 개량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소를 회원이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축개량”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2006년도 신년호부터는 몇 가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 사례를 통한 회원농가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례는 새로운 창조의 바탕이듯이 전국에서 개량사업에 대하여 열성적이고 선도적인 농가와 단체조직은 물론 실패한 사례의 전달기능을 “종축개량”지가 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 개량방향과 방법에 있어 기초적이거나 혼선을 겪고 있는 회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회원농가가 개량에 대한 지식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쌓아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농가는 전국의 농가에 선도적인 지도자임에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니다. 이러한 지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선진기술은 물론 개량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의미를 충분히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종축개량”



지는 여태까지 선진국 사례는 개량부분에 비하여 사양관리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고 봅니다. 이에 2006년부터는 개량부분에 더 많은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용어의 해설과 함께 개량의 새로운 지식을 회원에 전해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협회직원은 물론 회원농가의 “종축개량”지에 대한 참여를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직원과 회원간의 서로 긴밀한 정보의 교환과 현실에 맞는 개량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체 회원에게 전달코자 합니다. 한가지 방법으로 직원과 회원농가와의 대화내용도 적절히 게재하여 사소한 정보까지도 모든 회원에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회원에게는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회지로서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개량지로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축개량”지의 주 독자인 회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것처럼 “종축개량”지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따라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종축개량”지를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따라 지금보다도 더 많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따끔한 체찍질할 수 있는 주인된 회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은 회원과 투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원을 포함한 축산인 모두의 참여도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